

박찬승, 김도윤 후보자 출마 소견: “우리의 문제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 37대 총학생회 입후보하게 된 정회장 후보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2기 박찬승, 부회장 후보 체육학과 박사과정 1기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37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이유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학생회를 꾸려나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입후보하기 전 우리학교 대학원에 관한 세세하고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많은 토론을 하고, 다른 원우(및 수료자)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고민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희가 결론 낸 것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대학원 연구자들이 자기공부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가정으로부터 온전히 공부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대학원생들은 공부하랴...아르바이트 하랴...조교하랴...연구원 일 하랴...마음고생, 몸 고생을 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술 논문연구에 관한 소정의 지원금 지급, 학교 내 강의조교 노동 시간과 노동 범위에 관한 확실한 틀 마련, 학교 내 연구소 연구원들이 법적으로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토론 시간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학원 연구 관련 학술교류의 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술교류의 장이 학교 내 없다보니,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발전 시켜나갈 만한 계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구조적인 문제, 학교 내 문제,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장을 마련하게끔 하는 중재역할 하는 조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학문의 세계적 트렌드는 융합학문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문과/이공과, 한방의학/서양의학 등 분야를 막론하고 서로 학문이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학문교류의 장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학원생 인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학교 대학원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연구자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점점 일반대학원 진학 비율이 떨어진다는 국내 사회적 흐름과 동시에 취업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한국대학들의 상황이라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 영향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에 심도 깊은 학문을 배워야할 인재들이 있어야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일반대학원 학생들이 연구자로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며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교 내부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우리학교는 지도교수와 개인적 인간관계가 들어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학위논문 진척이 없는 경우, 대학원 생활과 아무 관련 없는 자신의 사적 일을 시키는 경우, 교수가 대학원 수업을 대충하는 경우, 앞서 말했듯이 대학원 연구원들이 법적으로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이 내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넷째, 대학원 총학생회 운영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일한 총학생회 선배들은 원우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활동 성과와 역량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본디, 대학원 총학생회라면 학생들 간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매개 역할, 학계 전문가 초빙을 통한 학문교류의 장 마련, 논문 글쓰기에 관한 정기적 강의 시스템 제공 등 마중물 사업을 꾸준히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학원 총학생회 운영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다섯째,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이외 우리 대학원 생활에 관한 전반적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보입니다. 먼저, 전업 대학원생과 직장인 대학원생간의 격차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극명하게 다른 두 그룹으로 인해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수료자들에 대한 대우에 관한 것입니다. 대학원 수료자 중 많은 분들은 학교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도맡아 하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 맞는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령, 많은 대학원 수료자들은 대학원 열람실(대학원행정실 건물)에서 자신들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분들이 대학원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열람실에서 철야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앞장서는 데, 박찬승과 김도윤이 제일 책임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패기를 가졌고, 대학원생들을 공감할 줄 아는 청년 박찬승과 김도윤이 우리 대학원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원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학생회와는 완전히 다른 학생회 모습을 원우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승, 김도운 후보자 공약

1. 전업대학원생들이 자기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 학술논문 연구에 대해 소정의 지원금 지급.
- 2) 대학교 내 강의조교 노동 시간과 노동 범위에 관한 확실한 틀 마련.
- 3) 대학교 내 연구소 연구원들이 법적으로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 마련.

2. 대학원 학생들 간의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 1) 각 단대별 학술대회 개최 추진.
- 2) 정기적 논문강연회 개최 추진.
- 3) 총학생회 주최 학술대회 개최 추진.

3. 대학원생 인권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1) 대학원생 강의 조교의 권리 향상.
- 2) 학교 내 연구소 소속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권리 향상.
- 3) 대학원생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

4.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1) 전업대학원생과 직장인대원생간 격차 해소.
- 2) 대학원 수료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 3)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인과 1대1 ‘멘토-멘티’ 프로그램 신설.

5. 민주적이고, 일하는 대학원 총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 1) 대학원 정회원 전체 총회 개최.
- 2) 대학원 총학생회 회계 관련 정기적 보고.
- 3) 기타 여러 공지사항 효과적 홍보를 위해 대학원 총학생회 SNS 계정 활용.
- 4) 단대별 대표자 간 정기적 회의 개최.
- 5) 총학생회 운영 시행세칙 구체적 작성
- 6) 총학생회 민주적 선거방식 구체적 기획.
- 7) 임원 구성 시 남/여 비율, 외국인/내국인 비율 고려하여 구성.

※ 박찬승, 김도운 후보자 공약 추진 전략

1. 비대면 시대 SNS 적극 활용

- 1) 구글 폼, 네이버 폼을 활용하여, 원우들 의견 적극 취합. 특히, 대학원생 인권 실태조사 시 적극 활용.
- 2) 대학원 총학생회 SNS 계정 개설을 통해 학생들 간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

2. 원우들의 민주적 의견 취합을 위해 퍼실리테이션 회의 개최

- 대학원생들 간의 학생회 운영 방식, 미래비전 기획에 관한 논의 시 다양한 아이디어 발산을 이끌기 위해, 회의 촉진 기법 중 하나인 퍼실리테이션 회의 개최.

3. 다양한 이해관계자(학생회, 대학본부, 유관기관)들과 협의회 신설

- 대학원 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함./ex) 특히, 강의조교 및 연구원 관련 노동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조가 필요함.

4. 원우들 간의 지속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1) 학교 내 정기적인 학문교류와 총회를 통해 원우들 간 충분한 신뢰감 구축.
- 2) 원우들 간 만남 이후 다양한 피드백 수용.
- 3) 원우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총학생회 대응 전략 수립 후 활동에 반영.
- 4) 임기 내 총학생회 성과공유회 가져, 원우들에게 총학생회 활동성과 공유 및 문제 상황 공유.

박찬승, 김도윤 후보자 슬로건

제 37대 ‘MOMENT’ 선거캠프

: MOMENT는 ‘순간’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소중히 생각하자는 뜻입니다.